

못난 지도자가 가져온 '19세 소년의 비극'

김정숙 교수의 필름에세이

김성제 감독 '보고타'

다음주 초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이 가져올 경제위기가 한국의 대기업 및 수출 기업에 다칠 것으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예견하고 있는 중이다. 수출 주력품목인 반도체와 이차전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라 심각성을 높인다. 골드만삭스는 트럼프의 관세정책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중차대함을 학자들은 강조한다.



김성제 감독 '보고타'.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제공

지 마세요!!"를 수차례 당부하고서 헤어졌다 했다. 당시 시국의 한 단편이었다.

영화 '보고타'는 그때 그 시절 IMF 구제금융 위기로 온 나라가 흔들리던 1997년이 배경이다. 19세 국희(배우 송중기)는 사업에 망한 부모님 따라 지구 반대편 나라 남미의 콜롬비아로, 인구 1000만에 육박하는 수도 보고타로 이민을 오게 된다. 아버지(배우 김중수) 말로는 미국 이민 가기 전 경유지라 했다. 월남전 전우였던 박 병장(배우 권해효)이 지금은 성공한 보고타 한인회장이라서 자신에게 은혜를 갚을 거라며 호언장담도 했다. 그렇지만, 막상 만나 본 박 회장은 썩 달가워하지 않은 눈치다. 당시의 콜롬비아는 국희 가족에게 도착 첫날부터 신고식을 치르게 한다. 택시의 창을 깨고 아버지의 돈가방을 훔쳐가는

오토바이 강도가 비일비재하고 불법이 난무하는 후진국이라서 이들 가족의 미래는 난항이 예상되지만 한다. 낯선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인 상인회의 권력을 전 박 회장 밑에서 일을 시작한 국희. 한인들이 보고타 시장에서 한국 의류를 팔며 성공가도를 달리는 데에는 한국으로부터의 불법 밀수를 부패한 세관원과의 결탁으로 이뤄낸 것이다. 그 총책임 박 회장은 앞뒤 가리지 않고 무대뽀를 앞세우는 국희를 자신의 일에 끌어들이고, 빈촌인 1구역에서 부촌인 6구역으로의 점핑을 목표로 삼게 된 국희는 박 회장의 의류 밀수에 가담하게 되고, 콜롬비아 세관에게 걸릴 위기상황 속에서 목숨 걸고 박 회장의 물건을 지켜내며 강렬하게 존재감을 각인시킨다.

대우자동차 파견직원이었다가 그룹이 도산하자

귀국하지 않고 보고타에 눌러앉아 통관 브로커가 된 수영(배우 이희준). 그 역시 자신의 야망에 따라 국희에게 위험한 제안을 하고, 이를 눈치챈 박 회장 또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며 국희를 시험한다. 자신의 선택으로 보고타 한인 사회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음을 체감한 국희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열망한다. 불법의 세계로 발을 디디며 밀수와 돈세탁을 배워가는 등 점점 어둠의 세계로 빠져 들어가는 국희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는 법을 모를 정도로 흑화해 가는 인물이다.

감독은 대체 이 스토리와 인물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그 정도의 근성과 치열함이라면 제 아무리 IMF 치하라 해도 한국에서 뭘든 해결해 나가지 못할 일이 없었을 것 아니었겠는가 싶어서다. 짐작컨대, 돈 때문에 충을 맞은 아버지, 19세 소년이 아름다운 청년기를 흑화로 성장해 가는 '비극'을 강조하기 위함은 아니었을까 싶다. 당시 한국은 슬기로운 김대중 대통령의 '금 모으기 운동' 덕에 그리고 국민들의 적극적 부응과 능동적 성원 덕에 최단기에 IMF 치하를 졸업하였다. 이로써 한국인의 국민성을 세계에 과시하였다. 국내에서야 그럴 만한 일이거늘 했지만, 세계인들은 "대체 저 조그마한 나라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저러도 국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지 놀라운 일"이라며 크게 감탄했다 한다. 10여 년이 지난 후에도 북미나 유럽을 가면 '국민들의 금 모으기로 IMF 위기를 극복한 훌륭한 나라'라는 찬사를 듣곤 했다. 역시 한국인은 훌륭한 국민성을 지녔다. 지도자만 훌륭하면 될 터인데... 새해가 되어도 매일이 격정적이다.



백예술대 명예교수

잘 키운 동네 기업 '머무르고픈 도시' 만든다



취재수첩

박소영

취재1부 기자
soyeong.park@jnilbo.com

"성심당 빵 사라 대전 간다." 대전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은 성심당에는 연간 1000만명 이상이 찾아온다. 오직 성심당 빵을 구매하기 위해 대전을 찾는 이들도 많다. 잘 키운 동네 기업 하나가 대전을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든 것이다.

성심당의 성공은 수도권 집중, 지역 불균형,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로컬산업'의 중요성을 증명한다. 지역 대표 로컬 기업을 통해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다.

전남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소멸 위험이 가장 큰 곳으로 '가장 늙은 지역'이라는 오명과 더불어 계속된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전남은 그간 대규모 관광단지·산업단지 조성, 6차산업 육성 등 지역 내 정주인과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나 효과는 미미하

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남 소멸위험지수는 0.329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0.615의 절반 수준이다. 또 전국 인구 중 전남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8.7%로 매우 낮지만, 고령인구 비중은 26.4%에 달한다. 전남 22개 시군 중 광양, 순천을 제외한 20개 지자체가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전남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향해 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 등 지역 고유 자원을 기반으로 다른 지역이 흉내 낼 수 없는 지역산업을 생산하며 지역 사회의 새로운 동력을 이끄는 만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서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이 또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로컬 콘텐츠를 활용해 창업 시장에 뛰어들어 청년 사업가들은 녹록지 못한 현실에 좌절하고 있다. 정부 지원사업의 준, 유행에 지나치게 따라가는 콘텐츠 등 5년 이상 사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문을 닫는 로컬크리에이터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사회협동조합 그리곡성'을 운영 중인 추선호 대표는 "스타트업에게 지원금은 독이든 성배라고 생각한다. 지원사업이 사라지면 일이 끊기니 당장에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며 "지원사업은 초기 창업가들에게 필요한 일이나 이를 잘 활용해 안정적인 회사 운영을 도모하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하며,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로컬크리에이

터 육성이 지나치게 유행을 따라가고 있다. 지역 고유 가치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펼쳐야 하는데, 대다수 제조업 중심에만 머물러 있다. 이름만 다른 똑같은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니 경쟁력 부분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역이 가진 고유 매력을 살리고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떠오른 '로컬 크리에이터'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당장에 가시적인 효과가 미미하더라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이야말로 아주 작은 규모의 자본을 통해 지방소멸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 성심당과 같은 동네 기업이 가지는 산업 가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기에 정부가 주도하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이 '반짝 정책'으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